

플랜트 수주규모 178억달러로 급증

해외건설협회, 1-6월 중동 중심으로 호조 ... 재스민 혁명 명향 미미

2011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금액이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11년 1-6월 국내 건설기업들이 외국에서 수주한 공사는 총 243건, 236억달러로 2010년 상반기 364억달러보다 35% 감소했다.

그러나 건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UAE 원전(186억달러)을 제외하면 32% 증가했고, 2009년 상반기 131억달러보다 무려 80% 급증했다.

한국 건설의 텃밭인 중동이 172억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73%를 차지했고 아시아(45억달러), 아프리카(8억달러), 중남미(5억달러), 북미·태평양(4억달러), 유럽(1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특히,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재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민주화 열풍이 일었음에도 중동(UAE 원전 제외)과 아프리카에서 모두 예년보다 각각 2배 이상 높은 수주액을 기록했다.

플랜트가 전체 수주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78억달러를 올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3월 사우디국영 석유기업 아람코(Aramco)와 27억6000만달러에 샤이바 가스오일 복합단지 건설공사를 계약하는 등 중동 산유국에서 발주된 주요 플랜트의 상당 부분을 수주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1>